

고려 고승 요세와 '백련결사'를 다시 본다

■ '원묘국사 요세와 백련결사운동' 학술세미나

덕룡산 용혈암 일대 문화환경보존운동도 전개

대각국사 의천(1055~1101년)이 개창한 고려 천태종의 중흥조 원묘국사 요세(1163~1245년)는 왜 수도인 개경을 등지고 반도 최남단 탐진(강진의 옛 지명) 만덕산에서 새로운 신앙결사체인 백련결사를 주도하고 민중 교화에 나섰을까?

강진 백련사 1대 주지이자, 보조국사 지눌(1158~1210년)과 함께 고려 후기 불교 개혁운동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원묘국사 요세 스님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다.

3일 강진 아트홀에서 열린 '원묘국사 요세와 백련결사운동'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 지역 유지, 불교 신도 등 300여명이 강당을 가득 채웠을 정도다.

특히,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인 유선호 의원, 황주홍 강진군수, 유인화 전 의원과 군수 입지자인 국영에 전 전남도의원, 강진 원 전 전남도 국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토대 위에서 원묘국사가 주지를 그만두고 은거했던 백련사 남쪽 덕룡산 용혈암 일대 환경 복원과 성역화라는 문화환경보존운동도 전개될 전망이다.

▲요세 스님과 백련결사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상영 중앙 숭가대 불교학과 교수는 "요세 스님은 여러 사람에게도 참회를 닦기를 권하여 매일 12번씩 예불하고, 준제신주를 1천 번, 나무 아미타불을 1만번 염송해 서참회(徐懺悔)라고도 불리웠다"고 말했다.

최동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요세 스님은 개성에서 출세가 보장된 벼슬길을 접고, 아인으로 돌아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참회와 염불을 위주로 하는 수행법으로 불교와 왜구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 교화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요세 스님은 고려 고종 19년 1232년 여름 만덕산에 보현도량을 열어 백련결사를 시작했고, 1237년

왕으로부터 선사 칭호를 받는다. 1245년 입적 후에는 국사로 추증되는데 그가 의천, 계응, 지눌, 혜심 이후 고려의 최고 고승이었던 셈이다.

이어 백련결사에 동참해 제자가 된 유학자 그룹인 천인, 천책 스님 등도 잇따라 국사가 되는 등 백련사 역대 주지 8명이 고려 말에 국사를 역임했으며, 조선시대에는 다산 정약용의 스승이자 친구인 연파(혜장)대사 등 8명의 종사를 배출했다. 백련사가 항몽의 가시밭길을 걸던 고려 말에 국가 지도이념을 세우고, 전파하며 민중의 수호자 역할을 일임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미나에서는 왜 변방이랄 수 있는 강진에서 백련결사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제주와 상주, 남원, 완도 등으로 퍼져나간 백련결사가 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는지 등을 밝혀내지 못하고 숙제로 남겼다. 자료 부족으로 요세 스님의 계보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백련사 주지 여연 스님은 "자료의 한계와 물적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고려 후기 사상과 문화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백련결사를 연구하는 일은 후학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관련 학술 세미나를 몇 차례 더 열어 백련결사의 역사를 복원해 강진의 인문학적 토양을 비옥하게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용혈암을 복원하자

용혈암(龍穴庵)은 원묘국사 요세 이후 천책, 천인 스님 등 고려 말 백련사 주지 출신 국사 네 분이 은퇴해 수행하다 입적한 암자다. 백련사 남쪽 덕룡산 자락에 위치한 이 암자는 100여 평 규모로 장흥 천관산과 마주하고 있다. 청동불상과 5층 석탑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주춧돌과 암굴 2개만 있고 주변에 야생화가 무성하다.

강진군은 지난여름 '용혈암지'를 폐내면서 용혈암 터를 철량의 고려 청자 도요지, 굴동굴의 다산초당 등과



3일 강진 아트홀에서 열린 백련결사 정신의 선양 및 재조명을 위한 세미나에서 원묘국사 등이 수행한 용혈암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련결사(白蓮結社)는? =1216년(고종 3) 천태종의 승려인 요세(了世)가 중심이 되어 무인란 이후 변화한 사회와 불교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촉구한 신앙결사로 강진 토호세력의 도움을 받아 만덕산에서 결성됐다. 최씨 무인 집권기에 들어서 기존의 문벌체제와 결탁된 불교계에 대한 자각·반성의 성격을 띠었으며, 지눌(1158~1210)이 순천 송광사에서 개창한 것으로 뒤에 수선사(修禪寺)로 사액(賜額)된 정혜결사와 쌍벽을 이룬다. 정혜결사가 간 화상을 위주로 한 참선불교였다면, 백련결사는 참회와 염불을 위주로 한 민중불교 결사체였다.



4일 강진군 도암면 월하리 용혈암터에서 추모제가 진행됐다.

함께 강진의 3대 성지로 규정하고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4일에는 백련사 주도로 암자 터 현지에서 추모제가 열리기도 했다.

문제는 인근의 구사 광산이다. 유리의 원료로 쓰이는 규사를 채굴하는 작업이 30년 이상 계속되면서 암자 터 주변의 훼손이 심각하다. 굴길도 변했고, 인공 산등성이는 보

기 흉하게 파헤쳐져 지역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 군내 불교계, 문화계, 환경단체 등이 동체 용혈암터 보존회를 결성해 대대적인 복원, 성역화 작업을 전개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주정 선임기자 jjnews@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대한민국한국화대전 대상에 이두환씨

최우수상 김숙희, 우수상 김해용·김현숙씨

광주시가 주최한 제23회대한민국한국화대전에서 이두환(34·인천)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미술협회 주관으로 지난 2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심사결과 최우수상으로는 김숙희(여·45)씨, 우수상에는 김해용씨와 김현숙씨가 각각 선정됐다.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지는 대상을 받은 이씨의 '카르마-시선'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면과 전통 계승했고, 미술형식의 기술적인 면에 도달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독창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100여 명의 대작이 대거 출품되었으며, 젊고 역량이 있는 미

술학도들의 참여도 크게 늘었다.

심사를 통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별상 3점, 특선 32점, 입선 111점을 선정했고 시상식은 오는 14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또 입상작은 14~1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추천·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

특선 이상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특별상=정인선 이선영 여소현

▲특선=장여진 조정에 전동민 나연

나 백계철 박성련 배교연 박종석 임

점배 백선영 장인숙 고익배 문두봉

박오순 전재숙 김은숙 조혜향 박양수

장미경 심복순 이형원 지민선 황지영

조영숙 문대호 신재희 이은희 이상아



'카르마-시선'

김란 이화우 강준경 신영숙. 문의 062-222-375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겨울로 떠나는 음악여행

박흥우·신수경 '겨울나그네', 내일 전남대

'보리수'가 실려 있는 슈베르트의 가곡집 '겨울나그네'는 쓸쓸함이 배어있는 요즘 같은 계절과 잘 어울리는 곡이다. 빌헬름 뮐러의 시에 붙인 24개의 노래로 구성된 가곡집 '겨울나그네'는 '열어붙은 눈물', '폭풍의 아침' '마지막 희망' 등의 제목에서 보듯, 쓸쓸함과 음울한 정서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과 광주 등에서 여러차례 함께 '겨울나그네'를 무대에 올렸던 피아니스트 신수경(전남대 예술대학 교수)씨와 바리톤 박흥우(한양대 등 출강·난파소년소녀합창단 음악감독)씨가 6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다시 클래식 팬들을 만난다.

두 사람은 첫번째 곡 '밤인사'부터 마지막 곡 '거리의 악사'까지 스산한 겨울여행을 떠난 한 남자의 모습을 피아노와 저음의 바리톤으로 들려준다.



박흥우



신수경

신씨는 서울대 음대와 일리노이 음대를 거쳐 인대예나 음대에서 연주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30여차례의 독주회를 가졌다. 중앙대를 거쳐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한 박씨는 독일 가곡 중심으로 70여차례의 독창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530-01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 내정 반발

시, 향후 대책 오늘까지 마련키로

광주시립합창단 신임지휘자 내정을 놓고 단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5일까지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2일 광주시청에서 시립예술단체 총단장인 광주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단원들과 2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단원들은 내정자가 합창을 정식으로 전공하지 않은 점, 프로 합창단 지휘 경험이 없는점 등을 들어 내정자를 받아들이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면담 결과 지휘

자 내정 절차 자체를 백지화 시킬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단원들의 개인 의견을 들어본 결과 내정자에 대한 불만이 많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객관성 등을 담보로 몇가지 방안을 마련, 시장에 보고후 5일까지 그 결과를 합창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겸직하는 문제는 백지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예술강사 선발

전남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강사 63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연극, 영화, 무용, 만화와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7개 분야로 지원자에 대한 실기·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강사는 내년부터 전남지역 542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에 파견돼 학생들을 상대로 문화 분야 강연에 나선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그동안 도내 예술강사가 부족해 다른 지역 강사들에게 의존했지만 이번에 부족한 신규 예술강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문의 061-280-5831. /장필수기자 bungy@

www.geumssoojang.co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 이상)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 이상)

오찬정식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노사연 Dinner Show

2011 Winter Special ₩165,000원 (VAT 포함)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 볼룸 **2011. 12. 15(목) 19:00**

예약 및 문의: 062)228-4711~2 대표전화: 062)228-800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19:00
입장 및 식사

20:00
디너쇼

21:40
퇴장 (롤케익 증정)